

	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배 포	2021. 1. 5.(화)
			담 당 과	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앙약품과
			과 장	채규한 (☎043-719-2610) 김남수 (☎043-719-2651) 김영림 (☎043-719-3051)
			서기관 · 사무관 · 연구관	김영주 (☎043-719-2640) 이근아 (☎043-719-2654) 최경숙 (☎043-719-3053)

‘클로로퀸’ 코로나19 치료·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

-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…‘덱사메타손’도 처방에 따라서만 ‘중증’ 환자에 사용
-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…위법행위 단속강화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최근 ‘클로로퀸(말라리아 치료제)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’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, ‘클로로퀸’은 코로나19 예방·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

○ ‘클로로퀸’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,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, 영국, 세계보건기구(WHO)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·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.

* 美FDA는 지난해 6월 ‘클로로퀸’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

○ 또한 유럽의약품청(EMA)은 ‘클로로퀸’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, 간·신장 장애,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.

-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‘덱사메타손’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·처방에 따라야 합니다.
- 식약처는 ‘클로로퀸’과 ‘덱사메타손’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‘전문의약품’이므로,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,
 -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
 -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·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